

화순군, 군정 주요 현안·부진 사업점검

공약사항·민원해결 등 진행상황 확인·대책 마련

관련 법규 철저히 분석·군민 이해·협조 선행되야

화순군이 8일 김종갑 부군수 주재로 군정 주요 현안과 부진 사업을 점검하는 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사태와 집중호우 등 유례없는 악재에 대응하면서 흑자나 놓치거나 부진한 현안 사업이 없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인 1000원 버스 운행, 아동·여성·고령친화 도시 조성,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남산공원 내 서양정·게이트볼장 이전, 서성리 양계단지 쓰레기·악취 문제, 인구 감소 문제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 상황을 살피고 부진한 부분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종갑 부군수는 코로나19로 상영이 중단된 화순시네마 운영방안 마련,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임시총회 후속 조치, 청령도 향상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부군수는 "민선 7기 현안을 해결하고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관련 법규를 철저히



분석하고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올해 남은 기간 부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안심식당 지정 확대

40곳 지정으로 외식 불안감 완화

담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식당은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등 전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 외식 기피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하는 식당으로 군이 현재 지정한 안심식당은 40곳이다.

안심식당의 3대 실천과제는 ▲ 안심식당의 3대 실천과제는 ▲ 음식 덜어 먹기 ▲ 위생적인 수저 관리 ▲ 종사자 마스크 쓰기다.

또한 개인이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용 접시, 집게, 국자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생적인 수저 관리를 위해 수저를 미리 비치하지 않고 별도로 제공하거나 개별 포장해야 한다. 군은 이를 실천하는 안심식당에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위생물품과 소독용품을 지원하며 3대 실천과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지정이 취소된다.

군 관계자는 "확대 지정과 이행상황의 수시 점검을 통해 외식의 불안감을 덜고 안심식당의 소비 촉진으로 안심식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추석명절 곡성심청상품권으로 10% 싸게 준비하세요"

곡성군, 10월 31일까지 할인...1인 구매해도 월 50만원

석을 맞아 곡성군이 곡성심청상품권 특별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할인을 통해 10월 31일까지 개인은 10% 저렴한 가격으로 심청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종이형 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모두 가능하며 1인 구매한도는 월 50만원이다. 법인의 경우의 상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며, 구매한도는

반기에 1천만원이다.

1월 10만원 이상 상품권으로 결제 시 1만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영수증을 챙겨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추석 명절 특별 할인 종료 이후에도 모바일상품권은 연말까지 10% 할인되며, 매월 5천원 이상 결제자에 대한 경품 추첨

이벤트도 계속된다.

곡성군이 지역상품권 이벤트에 힘을 쏟는 것은 주민들의 가계 부담 경감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다. 군 관계자는 "할인과 이벤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심청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와 소상공인 모두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동참을 당부했다.

곡성심청상품권은 종이형의 경우

곡성군 내 농축협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상품권은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한 엠(비플제로페이, 쿠팡, 체크페이, 페이코, 올원뱅크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현재 곡성군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곳은 종이형 상품권 가맹점 940개소, 제로페이가 가맹점 844개소로 대부분의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곡성=김광휘기자



나주시, 다시면 구호물품 기탁

민주노조 나주시지부, 300만원 상당 휴지 기부

나주시 다시면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나주시지부(지부장 최라현)에서 수혜 이재민 구호물품으로 300만원 상당 휴지를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최라현 지부장은 "지난 달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분들께 소소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조 나주시지부는 나주시청 공무원,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근로자 등 25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됐다.

기동취재본부

추석 대비 노후관로 청소...추석 연휴 '상황실' 운영

화순군, 14일부터 청소 작업·야간작업 단수 등 불편 최소화

화순군은 추석 연휴에 탁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수도를 공급을 위해 상수도 관로 청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군상수도사업소는 관로를 설치한 지 오래돼 녹물 민원이 많은 관로 말단 지역 퇴수(청소) 작업을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한다.

상수도 관로 청소는 퇴수 작업 시 화순읍 등 8개 읍·면은 단수 등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 사용량이 적은 야간에 작업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소는 작업 일정과 야간작업 등 노후관로 청소 관련 내용

을 해당 읍·면 마을방송을 통해 군민에게 안내했다. 민원을 대비해 충분한 양의 생활용수도 확보해 뒀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추석 연휴 생활민원 처리와 급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 복구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섬진강댐 방문해 급방류 재발방지 주문

지난 8일 곡성군이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를 방문해 댐 방류로 인한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유근기 곡성군수를 비롯한 곡성군 담당자,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회원들이 함께 했다. 한국수자

원공사 측에서는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 최등호 본부장과 섬진강댐지사 안형모 지사장 등 6명이 응대했다.

곡성군은 8월 7~8일 섬진강댐 급방류로 인한 제방 붕괴, 하천 범람으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었다. 또한 과거에도 폭우에 댐 방류량

증가까지 겹쳐 수해를 입는 일이 수차례 반복돼왔다. 이에 따라 곡성군 측은 이러한 반복적인 수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5가지 대책을 주문했다.

첫번째, 섬진강댐의 기능과 관리매뉴얼을 홍수 통제능력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다. 두번째, 금년 섬진강댐 방류로 인해 수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세번째, 갈수록 갈수록 평상시에도 하천 유지수를 일정하게 방류해달라고 요구했다.

네번째,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이다.

곡성=김광휘기자

성인문해교육 노력 결실 맺었다

화순군, 전국 시화전서 우수상·격려상 수상

화순군 성인문해학교 학생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한 '2020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우수상과 격려상을 수상했다.

수상의 주인공은 군 주관 찾아가는 문해교실에서 늦깎이 학생인 사평면 이남순(80)·김복순(75) 어른신이다.

이남순 어른신은 '코로나 때무내'라는 제목으로 6.25때도 공부를 못했는데 코로나19로 공부를 못해 자꾸 글을 잊어버리는 자신을 보며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아쉬운 마음을 작품으로 표현해 우수상을 받았다.

화순=박순철기자

GWANGJU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